

任意後見契約法日韓対訳

尹 敬 勲
洪 榮 梅

近年、韓国社会はベビーブーム世代の定年退職に伴い、老後に支給されるはずの国民年金と、長寿社会に突入することによる老人介護が重要な問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すなわち、韓国では高齢人口の増加に伴って、老人の介護に対する施策の策定が議論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勿論、韓国においても高齢化問題に対する議論は今に始まったことではなく、議論の視点は、韓国社会を支配する儒教的価値観および規範に基づいており、高齢化した両親の介護は家族の役割、特に長男の役割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が事実である。

しかし、近年、韓国においても核家族化が進んでいることと、労働市場の国際化および競争の激化と女性の社会活動の拡大によって、親の介護を子供が担うことが物理的に困難な状況となり、伝統的価値観を子供に押し付けることも難しい状況である。そのため、介護に関する制度的支援策の用意が政策課題として重視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韓国の高齢化社会の現状と政策上の課題を踏まえると、今回の日本の「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任意後見契約法」平成11年12月8日法律第150号）」の韓国語訳は、高齢化社会の先進国である日本の法制度を韓国に紹介するとともに、社会および政治経済環境が異なる両国の高齢化社会における法律の比較研究を行う土台として重要な意味を持つと考えられる。

任意後見契約法

日 文

(趣旨)

第一条 この法律は、任意後見契約の方式、効力等に関し特別の定めをするとともに、任意後見人に対する監督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任意後見契約 委任者が、受任者に対し、精神上の障害により事理を弁識する能力が不十分な状況における自己の生活、療養看護及び財産の管理に関する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委託し、その委託に係る事務について代理権を付与する委任契約であって、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た時からその効力を生ずる旨の定めのあるものをいう。

二 本人 任意後見契約の委任者をいう。

三 任意後見受任者 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る前における任意後見契約の受任者をいう。

四 任意後見人 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た後における任意後見契約の受任者をいう。

(任意後見契約の方式)

第三条 任意後見契約は、法務省令で定める様式の公正証書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임의후견계약법

한국어

(취지)

제 1 조 이 법률은 임의후견계약의 방식, 효력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정하는 동시에 임의후견인에 대한 감독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대상하는 용어의 뜻은, 해당하는 각호에 의거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 (1) 임의후견계약의 위임자가 수임자에 대해서, 정신적 장애로 사리분별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에 있어, 자립생활, 양호/간호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반 혹은 일부를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계약에 있어서, 제 4 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임의후견감독이 선임되었을 때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을 규정한다.
- (2) 본인은 임의후견계약의 위임자를 뜻한다.
- (3) 임의후견수임자라는 것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기전의 임의후견계약의 수임자를 뜻한다.
- (4) 임의후견인이라는 것은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후에 있어서의 임의후견계약의 수임자를 뜻한다.

(임의후견계약의 방식)

제 3 조 임의후견계약은, 법무성의 령에서 정한 양식의 공정증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第四条 任意後見契約が登記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精神上の障害により本人の事理を弁識する能力が不十分な状況に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本人、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又は任意後見受任者の請求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を選任する。ただし、次に掲げ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本人が未成年者であるとき。

二 本人が成年被後見人、被保佐人又は被補助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本人に係る後見、保佐又は補助を継続することが本人の利益のため特に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

三 任意後見受任者が次に掲げる者であるとき。

イ 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八百四十七条 各号（第四号を除く。）に掲げる者

ロ 本人に対して訴訟をし、又はした者及びその配偶者並びに直系血族

ハ 不正な行為、著しい不行跡その他任意後見人の任務に適しない事由がある者

2 前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を選任する場合において、本人が成年被後見人、被保佐人又は被補助人で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当該本人に係る後見開始、保佐開始又は補助開始の審判（以下「後見開始の審判等」と総称する。）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本人以外の者の請求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を選任するには、あらかじめ本人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本人がその意思を表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た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本人、その親族若しくは任意後見人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任意後見監督人を選任する。

5 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も、家庭裁判所は、必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 4 조 임의후견계약이 등기되어있을 경우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본인의 사리분별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서, 가정재판소에서는 본인, 배우자 혹은 사촌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그들중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다.

(1) 본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2)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혹은 피보조인일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되는 후견, 보좌 혹은 보조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후견수임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1) 민법(메이지29년 법률 제89호) 제847 조 각호 (제 4 호를 제외함)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 2) 본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거나 또는 소송을 한 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 3) 부정한 행위, 혹은 임의후견인의 임무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

2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 피후계인, 피보좌인 혹은 피보조인 일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에 대한 후견의 개시, 보좌 개시 혹은 보조 개시의 심판 (이하 「후견시작의 심판 등」을 총칭한다) 을 취소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외의 사람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에 한한다.

4 임의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 재판소는 본인, 그 친족 혹은 임의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5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재판소는 필

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に掲げる者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更に任意後見監督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任意後見監督人の欠格事由)

第五条 任意後見受任者又は任意後見人の配偶者、直系血族及び兄弟姉妹は、任意後見監督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本人の意思の尊重等)

第六条 任意後見人は、第二条第一号に規定する委託に係る事務（以下「任意後見人の事務」という。）を行うに当たっては、本人の意思を尊重し、かつ、その心身の状態及び生活の状況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等)

第七条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は、次のとおりとする。

- 一 任意後見人の事務を監督すること。
 - 二 任意後見人の事務に関し、家庭裁判所に定期的に報告をすること。
 - 三 急迫の事情がある場合に、任意後見人の代理権の範囲内において、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
 - 四 任意後見人又はその代表する者と本人との利益が相反する行為について本人を代表すること。
- 2 任意後見監督人は、いつでも、任意後見人に対し任意後見人の事務の報告を求め、又は任意後見人の事務若しくは本人の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任意後見監督人に対し、任意後見人の事務に関する報告を求め、任意後見人の事務若しくは本人の財産の状況の調査を命じ、その他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ついて必要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항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의후견감독인의 결각사유)

제 5 조 임의후견 수임자 또는 임의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수없다.

(본인의사의 존중등)

제 6 조 임의후견인은 제 2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에 관한 사무 (이하 「임의후견인 의사무」 라고 한다) 를 실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 혹은 심리 상태 및 생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등)

제 7 조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것.
 - (2) 임의후견인의 사무에 관하여, 가정재판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 (3) 급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4) 임의후견인 혹은 그 대표하는 자와 본인 과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을 대표로 할 것.
- 2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나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무 혹은 본인의 재산의 상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3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임의후견인의 사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의 후견인의 사무 혹은 본인의 재산 상태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고, 그 외 임의

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4 民法第六百四十四条, 第六百五十四条, 第六百五十五条, 第八百四十三条第四項, 第八百四十四条, 第八百四十六条, 第八百四十七条, 第八百五十九条の二, 第八百六十一条第二項及び第八百六十二条の規定は, 任意後見監督人について準用する。

(任意後見人の解任)

第八条 任意後見人に不正な行為, 著しい不行跡その他その任務に適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 家庭裁判所は, 任意後見監督人, 本人, その親族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 任意後見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任意後見契約の解除)

第九条 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る前においては, 本人又は任意後見受任者は, いつでも, 公証人の認証を受けた書面によって, 任意後見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2 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た後においては, 本人又は任意後見人は, 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に限り, 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 任意後見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後見, 保佐及び補助との関係)

第十条 任意後見契約が登記されている場合には, 家庭裁判所は, 本人の利益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に限り, 後見開始の審判等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場合における後見開始の審判等の請求は, 任意後見受任者, 任意後見人又は任意後見監督人も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た後において本

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 4 민법 제644조, 제654조, 그리고 제655조. 또한 제843조 제 4 항과 제844조, 그리고 제846조와 제847조.

그리고 제859조의 2,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임의후견감독인에 관해서 준용된다.

(임의후견감독인의 해임)

제 8 조 임의후견인의 부정한 행위, 현저하게 주정한 행적, 그 외의 임무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때, 가정재판소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그 친족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서,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의 해제)

제 9 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어서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수임자는 언제나 공정인의 인정을 받은 서면에 의거하여, 임의후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정재판소의 허락을 얻어, 임의후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견, 보좌 및 보조 와의 관계)

제10조 임의후견계약이 등기되어있는 경우 에는, 가정재판소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할 수있다.

- 2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후견 개시의 심판 등의 청구는, 임의후견수임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할 수있다.

- 3 제 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에 있어

人が後見開始の審判等を受けたときは、任意後見契約は終了する。

(任意後見人の代理権の消滅の対抗要件)

第十一条 任意後見人の代理権の消滅は、登記をしなければ、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家事審判法の適用)

第十二条 家事審判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二号）の適用に関しては、第四条第一項、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によ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第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報告の徴収、調査命令その他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四条、第八百四十六条、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八百六十二条の規定による任意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任意後見監督人が数人ある場合におけるそ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並びに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第八条の規定による任意後見人の解任並びに第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の許可は、家事審判法第九条第一項甲類に掲げる事項とみなす。

(最高裁判所規則)

第十三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審判の手續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附 則

この法律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서 본인이 후견 개시의 심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은 종료한다.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의 소멸의 대항 요건)

제11조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사심판법의 적용)

제12조 가사심판법 (쇼와 22년 법률 제152호)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견 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철회, 조사 명령과 그 외의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한 처분, 동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되는 민법 제844조, 846조, 제85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혹은 제862조의 규정에 의거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관한 허가, 임의후견감독인의 해임, 임의후견감독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규정 및 그 취소와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의후견계약의 해제에 대한 허가는, 가사심판법의 제9조 제1항의 감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최고재판소 규칙)

제13조 이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임의 후견계약에 관한 심판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에 의거하여 정한다.

부 칙

이 법률은 2000년 (헤이세이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